

교회 소식

샬롬! 하나님 안에서 새해를 함께 맞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진실히 예배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듣고 행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함께 보고 기뻐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2021년 정기 공동의회 안내:
안건: 2020년 결산 보고 및 2021년 예산안 승인
올해 공동의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1월24일(주일)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감사 소견이 첨부된 2020년 결산보고와, 2021년 예산안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1월24일 주일예배시 재정부에서 결산과 예산안에 대해 대면 현장과 영상으로 보고합니다.
- 보고를 들으신 후 함께 보내드린 투표용지에 찬반 의견을 표시해
1) 표시한 투표용지를 예배당의 헌금함에 넣으시거나;
2)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70 Bedford Rd., Pleasantville, NY 10570)
3) 카톡방을 통해 보내드린 투표형식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 2월5일(금)까지 의견을 취합해 2월7일(주일)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 3가지중 하나의 방식으로 의견을 표시한 분을 "출석"으로 간주해 성회 정족수(투표권자의 1/3)를 구성하고, 투표자의 과반수로 가결합니다.
- 후보를 새롭게 꾸며보았습니다. 후보 표지에 실을 사진들 (가족 사진, 교제 모임, 예배 장면 등)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 대표기도: 김병규 집사 (시 139:1-6, 13-18)
- 친교: TBA

예배 안내

- **주일예배:** 1:30pm, YouTube
- **English Service:** 12pm, Zoom
- **새벽기도 (월-토):** 6pm, YouTube
-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10am, Zoom
- **중 · 고등부(Youth Group)예배:** 12pm, Zoom
- 주일예배처소: 448 Bedford Rd, Armonk, NY 10504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817 3134 4066 (Sunday School)
939 020 5125 (EM/Youth)

성경 공부 및 모임

- **역사서와 선지서 성경공부:** 수요일 8pm, Zoom
- **중 · 고등부 성경공부:** 금요일, 8pm, Zoom
- **구역모임:** TBA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이민영
-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기도

-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Youth Group Secret Santa Reveal!!! / Jan 9, 2021>

교회 연락처

주소: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전화번호: (914) 874-3606
 Email: nyskch@gmail.com
 Homepage: www.nysekwang.org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Podcast: 뉴욕세광고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뉴욕세광고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rder of English Service

<12p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I love You, Lord” -----Together
 Call to Worship -----Together
 Worship & Praise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 **Matthew 4:18-25** ----- Leader
 Sermon-----“**Starting the Year Off
 On the Right Foot**” -----Pastor Kim
 Reflection Prayer -----Together
 Benediction -----Pastor Kim



Memo

주일 예배 순서

<오후 1시 30분>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여는 기도 ----- 인도자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497(274) 주 예수 넓은 사랑----- 다함께
Hymn
 대표기도 -----시편 29편 ----- 권혜순 집사
Praye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마태복음 15:29-39** ----- 인도자
Word of God
 설교-----“**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Sermon 일곱 광주리에 차게**” ----- 이민영 목사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
 찬송----- 521(253) 구원으로 인도하는 ----- 다함께
Hymn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지난 주 설교 말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마태복음 15:21-28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가나안 여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딸을 고쳐 주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민족과 종교의 경계를 넘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는 모든 이에게 은혜로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선 자기에게 부르짖는 여자의 간구를 처음에는 무시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냉정하게 은혜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냉정하게 대하려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드러내려 하신 것입니다. 자기들은 울타리 안에 들어 있어 주님이 찾아오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제자들의 불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줄 음식을 상 밑의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에 여자는 “웁소이다” 대답합니다. 유대인은 자녀이고 이방인은 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신학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자력 없는 자에게 주시는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받기만 하면 온전한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서 상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긴 제자들보다 겸손하게 은혜를 간구한 여자의 믿음을 더 크다고 칭찬하십니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게 살립니다. 집에 있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받은 것만 세고 있는 큰 아들은, 아버지 재산만 받아 집을 떠난 작은 아들처럼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도 재산도 직분도 공로도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교회도 목사이고 장로입니다. 은혜 없는 직분과 권세는 자기에게도 재앙이고 다른 이에게는 가시입니다. 그러나 끝자리라도 상 밑이라도 은혜만 있으면 나중된 자가 먼저됩니다. 믿음의 분이 됩니다. 하나님만 영화롭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격과 공로를 내려놓고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함을 깨우쳤을까요? 충성된 자기들보다 이방 여자를 칭찬하시는 부당함을 억울해 했을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원망하는 암전한 양들처럼, 방탕한 동생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큰 아들처럼?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것을 나누지 못합니다. 가진 것을 지키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먹고 배부른 사람은 나쁩니다. 자기가 벌여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았으니 남들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나누고 자랑하고 초청합니다. 살리는 생명줄을 붙잡고, 빠져가는 이들에게 생명줄 던져 함께 살게 합니다.